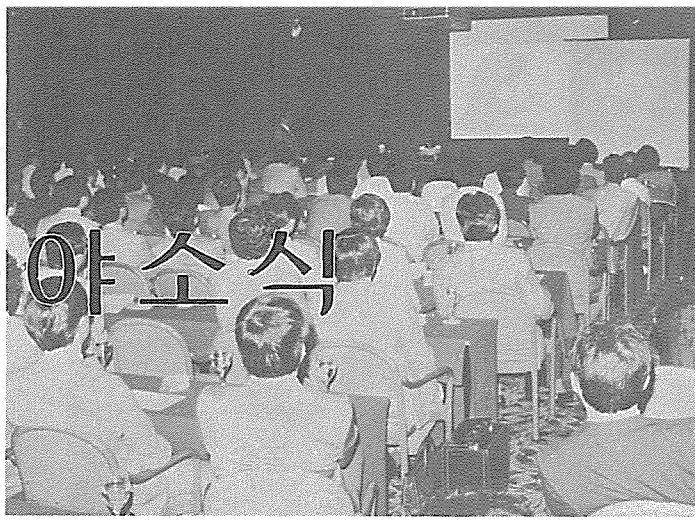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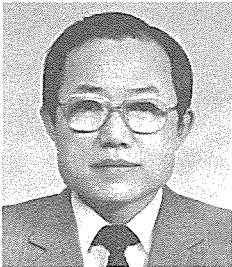
학술분야소식



◎ 공직치과의사회 19차 정기총회

- 신임회장에 李鍾甲교수(연세대치대 소아치과 학 교수)선임
- 전문치과의제도 계속사업으로 적극추진결의
- 예산 3,900여만원확정, 공직회에 적절한 사업추진

公職齒科醫師會의 제 19차 정기총회가 지난 22일 오후 경희의료원 강당에서 개최되어 신임회장에 연세치대 李鍾甲교수를 선출하고 사회기예산 3천 9백 37만원을 확정하는 한편 전문치과의 <신임 李鍾甲회장> 제도의 시험시행은 늦추더라도 제도시행은 지속적으로 관철시킬것을 결의 했다.



梁源植 대의원의장의 코믹하고 재치있는 회의 진행으로 부드러운 분위기속에 진행된 이날 총회는 5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89회계년도의 회무·결산보고를 이의없이 통과시켰고, 감사보고에서는 국립치대 부속병원 설치문제에 있어 문교당국자와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전국치과병원 실태조사와 제 1회 공직치과의사회 심포지움개최는 매우 큰 업적이라고 보고 했으나 전문치과의제도 시행 계획에 있어 찬·반설문조사를 실시, 85%라는 공직회원들의 찬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제도 찬·반에 대한 공직치과의사회의 공식입

장을 유보한것을 회원들의 의사반영을 약화시킨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회장선거에서는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회장단이 입후보해 회원들의 직접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선출방법을 채택. 연세치대 정성철교수의 추천으로 입후보한 이종갑(부회장: 이상래, 서규원)교수와, 서울치대 민병일교수의 추천을 받은 김수경(부회장: 한수부, 조병욱)교수가 결함을 벌였는데, 연대치대 이종갑교수가 신임회장에 당선됐다.

또한 감사로는 전임감사인 김광남, 이호용교수가 유임됐고, 대의원 의장에도 양원식 現의장이 만장일치로 유임됐다.

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에서는 전체 공직치과의사회 위치확립을 도모하며, 회원의 특성에 맞춰 내놓았다는 집행부의 7개부서별 사업계획을 수정없이 통과시켰고 총 3천 9백 37만원 규모의 사회기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회칙개정순서에서는 집행부가 내놓은 개정안중 회원자격조항에서 「보건소 및 개인이 개설한 종합병원 치과근무자는 제외된다」는 문구의 제외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공중보건치의 공직지부로의 소속문제는 치협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차기집행부에 일임해 치협에 상정키로 했으며, 치협대의원총회에 파견하는 대의원선출에 있어,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장키로 결정했고, 선출방법은 회원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자는 제안에 대해 차기집행부에 일임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끝으로 기타안건의심의에서는 전문치과의제



〈공직치과의회는 지난 22일 제1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연세치대 이종갑교수를 선출했다.〉

도를 거론, 이대병원의 김명래교수는 「전문의 제도에 대한 관심때문에 오늘 총회에 참석했다」고 말하고 지금 이자리에서 공직치과의사의 견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 그 시행추진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제도시행에 관한 합리적인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라도 회원전체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전국의 지부장들과 개원가에서는 반대의견이 지배적이고 입법예고자체를 완전히 폐기시키자는 분위기로 대세가 기울고 있는 現상황에서 치과계 장래를 보거나 치의학의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시행을 우리 공직치과의사회 회원들만 이라도 강력히 추진할 것을 회원전체가 결의하자고 역설하며 당장에 시행은 어려울만큼 시험시행은 늦추되 제도 자체는 관철시켜야한다는 공직의 견해를 치협에 전달하자고 주장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 김광남교수는 공직은 당연히 시행추진을 찬성한다는 입장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85%의 찬성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공직의 홍보미비는 인정하고 개원의들과의 합의점을 도출해 양극을 달리지는 말아야 한다. 단편적이고 일관된 생각만으로는 집행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양원식의장이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제도자체는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행시기는 늦추는 방향으로 결의를 하자」고 제안해 참석의원들의 절대다수가 박수로서 이를 채택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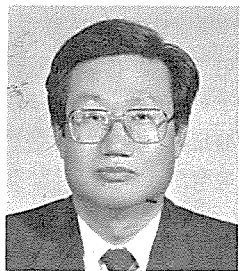
새로 취임한 李鍾甲회장은 「일반치과대학은 물론 수련의들의 교육발전과 향상을 위해 전국 치과대학과 수련병원에 있는 치과의사가 참여하는 가칭 교육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李鍾甲 공직회장의 약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196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과정 수료 석 박사 학위 취득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현재)
 대한 소아치과 학회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생과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무과장
 공직치과의사회 부회장
 미국 인디애나대 유학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병원장등 역임.

◎ 대한치과교정학회 제28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에 孫秉和 연세대 치대교수 선임

大韓齒科矯正學會의 제 28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지난 24일 오후 2시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 孫秉和전부회장(연세치대 교정과교수)을 신임회장에 선출하는 한편 3천 1백 61만여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신임 孫秉和회장〉

이날 총회는 회원 3백여명이 참석, 89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통과시킨후 임원을 개선, 孫秉和신임회장의 부회장에 李起受(유임) 張英一 전총무이사, 감사에 金鈞문, 安秉根씨를 각각 선출했다.

이어 총회는 90년도 예산을 3천 1백 61만 6천 5백 30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제 9회 전공의 학술대회 및 월례학술집담회 개최, 교정과전문의실시 추진위원회 및 용어제정 심의위원회 운

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또한 동학회는 학회지 제20권 1호를 발간 회원에게 배포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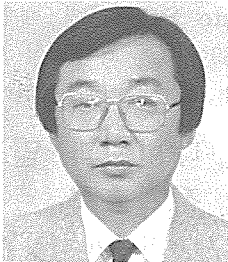
*동학회의 새로 구성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 장	손 병 화	(연 세 치 대)
부 회 장	이 기 수	(경 회 치 대)
부 회 장	장 영 일	(서 울 치 대)
총 무 이 사	정 규 립	(경 회 치 대)
학 술 이 사	박 영 철	(연 세 치 대)
재 무 이 사	조 행 작	(개 원 의)
편 집 이 사	차 경 석	(단 국 치 대)
사 업 이 사	이 준 규	(개 원 의)
국 제 이 사	백 형 선	(연 세 치 대)
이 사	김 재 찬	(개 원 의)
이 사	전 윤 식	(이화의대치과)
감 사	김 규 문	(개 원 의)
감 사	안 병 근	(한림대치과)

◎ 대한치과보존학회 제30차 정기총회

신임회장에 權赫春교수 선임

대한치과보존학회는 지난 30일 제30차 정기총회 및 제 78차 학술집담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권혁춘(서울치대교수)교수를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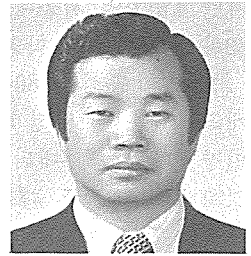
이날 오후 서울치대에 열린 총회는 지난회 <신임 權赫春회장>기의 회무 및 감사보고와 결산액을 일괄 심의해 통과시키고, 신임집행부 임원선출에 들어가 회장에 權赫春교수를 선출하는 한편 감사에는 李允相, 宋英鎬박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예산안심의에서는 1천 3백 73만여원의 새회기예산을 확정짓고 학술집담회 개최계획, 학회지 발간, 회원배가사업, 의부수가 현실화, 보존학회기금 모금, 보존과 전문의 대책추설치등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서는 연세치대 이찬영교수의 「치과에서의 레이저 이

용」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신임 權赫春교수는 1963년 서울대치대 졸업,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서울대 치대 보존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치과 교육연구 담당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새로 취임한 權赫春회장은 회원간의 임화를 중점사업으로, 그리고 연구하는 학회로써의 학술활동을 적극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 부회장에는 嚴正文, 鄭官喜박사를, 감사에는 李允相, 宋英鎬박사를 각각 선임한바있다.

◎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제29회 정기총회. 신임회장에 金秀男 원광대 치대학장 선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의 제29회 정기총회가 지난 24일 낮 12시부터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어 現 원광齒大 학장인 金秀男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2천 7백 67만여원 규모의 새 회기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1백 4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총회는 개회식에 이어 전년도 회무·결산보고 및 이견주감사의 감사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인후 임원개선에 들어가 회장에 김수남, 부회장에 이희철·조병욱박사, 감사에 신효근교수를 각각 선출하는 한편, 2차례에 걸친 학술대회개최를 골자로 하는 신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2천 7백 67만여원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23·24일 양일간 회원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속에 진행된 종합학술대회에서는 「Reconstructive Surgery」에 관한 김명래교수의 강연을 비롯한 4편의 특별강연이 펼쳐졌으며 「내과적 질환을 수반한 치성감염」을 주제로 한 김원겸씨(한림大)의 논문등 51편의 연구논문과 김현철씨(대림성모병원)의 「감염된 하악 골격시 miniplate를 사용한 치험예」등 2편의 포스터가 각각 전시, 발표되었다.

학술대회 첫날 진행된 4편의 특강연자 및 연제는 다음과 같다.

- ▲ 김명래교수(이대醫大) = Reconstructive Surgery
- ▲ 김명진교수(서울齒大) = 기능적악안면의 재건설의 진보
- ▲ 김경욱교수(檀國齒大) = T.M.J Disorder
- ▲ 정 훈교수(한림醫大) = 악관절경의 임상적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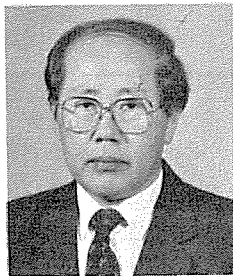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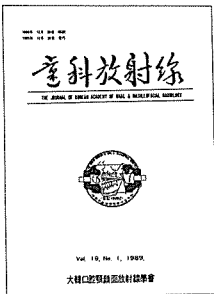
◎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제 22차 정기총회성료 현 朴兌源회장 재추대

대한구강 악안면방사선학회(회장 朴兌源)는 지난 4월 9일 서울대 치대 제1세미나실에서 제 22차 정기총회와 학술강연회를 가진바 있다.

동 정기총회는 8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임선개선에서 朴兌源 현회장이 만장일치로 재추대되었으며 부회장에는 李祥來 경희대교수와 李淳杓회원이 선출되었다. 이어 예산안 심의에 있어 1,200여만원의 예산안과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의없이 승인하였다.

이보다 앞서 열린 학술강연회에서는 劉東洙교수와 李祥來교수를 좌장으로 모시고 경희대 치대 朴東珍박사의 「Glucocorticoid의 장기투여와 운동억제에 의한 골 손실에서 Calcitonin의 예방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의 5편의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다.

또한 동학회는 학회지 제19권 제1호를 발간하여 전국회원에게 배포한바 있는데 12편에 이르는 연구논문이 실려있다.



<사진은 朴兌源회장과 회지 제19권>

◎ 대한치과교합학회 제 8 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치과 교합학회(회장 : 윤창근)의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4일 셰라톤 워커힐 호텔 선플라워룸에서 200여명의 회원 및 내빈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바 있다. 학술대회를 마친후 5시 30분 부터는 일본대학 치학부 보철과의 Igarashi교수가 “Prosthodontio Treatment for the Patients with Attrition”란 연제로, 미국 Miehigan대 치대 교합과의 Ash교수가 “TMJ/Occlusal Problems”란 연제로 각각 1시간씩 특강을 하였다.

모든 학술행사를 마치고 저녁 8시 부터는 제 8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89년도의 회무 결산 보고에 이어 1천 3백 36만 여원 규모의 새 예산안과 각 부서별 사업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또한 학회의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초대회장 김영수교수, 3대회장 강효식교수에 대한 공로패 수여도 있었다.

이튿날인 25일은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6시 까지 Ash교수의 “교합 안정장치(Occlusal Bite Splint)”에 대한 유료코스가 있었으며, 130여명의 회원들이 이 코스를 참가하여 교합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대단함을 보여주었다.

◎ 대한치과 임프란트학회 제14회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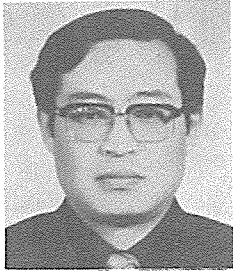
대한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회장 : 崔牧均) 제14회 정기총회가 지난 달 29일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려 2천 7백 여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金鴻基명예회장에게 제 7 회 「임



<임프란트학술대상을 프란트학술대상>을 수여 받은 金鴻基박사>했다. 대상을 받은 김홍기박사는 임프란트학회를 창설 초대회장을 역임하면서 치과이식학 발전에 발군의 공을 세운바 있다.

◎ 대한구강보건학회 제27차 종합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개최

대한구강보건학회는 3월 23일 서울 뉴 월드호텔에서 종합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한바 있다.



〈신임 한계희 회장〉

1부 학술논문발표회와 2부 정기총회순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1부에서는 경희치대 최유진교수가 좌장으로 서울대 이원재, 경희대 이태수, 한봉석선생이 각각 “한국인 영구치의 치아별 평균 우식증 발생연령에 관한연구”, “산성음료가 법랑질 탈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치아 경조직 부식 후 재 경화에 관한 시간적 연구” 등에 관한 연제로 논문발표순서를 가졌다.

한편 2부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예산결산액등을 보고받고 끝이어 임원 개선에 들어가 한계희 박사(서울치대 22회)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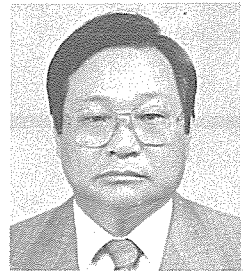
확정하는 한편 鄭聖昌회장을 유임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새로이 구성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정 성 창
부 회 장 : 한 계 희, 김 영 구
감 사 : 김 계 중, 임 형 순
총무이사 : 김 기 석
학술이사 : 정 성 철
재무이사 : 김 능 세
섭외이사 : 고 명 연
공보이사 : 신 금 백
국제이사 : 김 성 옥
편집이사 : 김 세 진

◎ 대한구강해부학회 1990년도 학술집담회 및 제14회 정기총회

대한구강해부학회는 지난 4월 18일 서울대치대 병원 1층 제1세미나실에서 학술집담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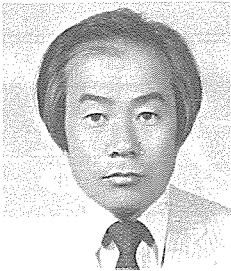


학술집담회에서는 일본 소화치대의 Sasaki 교수가 “Cell Biology of Tooth Enamel Formation”의 연제하의 강연이 있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각종 사업과 회계, 감사 보고가 있었으며 임원개선을통해 韓亨鎭 박사를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는데 신임회장의 주요약력은 다음과 같다.

◎ 대한구강내과학회 제19차 정기총회 및 학술집담회 성료

대한구강내과학회(회장 정성창)에서는 지난 4월 13일 강남 그린 그래스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정성창 회장〉

제1부 학술집담회에서는 조선치대의 윤창륙교수가 치과응급처치에 관한 연제로 강연이 있었으며 이어 속개된 정기총회에서는 89년도의 결산액을 보고받고 총 6,366,872원의 90년도 예산안과 학술집담회 개최, 연구논문발표회, 학회지 발간, 교과과정개선을 위한 워크숍개최등을 골자로 하는 동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1958년 서울치대 졸업
1971년 서울대학원 의학박사학위취득
1976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역임
1978년 연세치대 외래교수 역임
1978년 경희치대 시간강사(치아 형태학)
1978년 신홍보건전문대학교수 역임
1979년 대한보철학회 감사역임
1981년 대한구강해부학회감사역임